

# 최근 한국 산맥 쟁점들에 대한 토의

조화룡(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wharyongjo@hanmail.net)

## 1. 서언

수년전부터 한국의 '산맥'에 관해서 논의가 뜨겁다. 기존의 산맥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우리 지형학계 혹은 지리학계 내부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즉 비전공자를 중심으로 특히 방송·신문 같은 언론사를 동원해서 '교과서의 산맥 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우리나라 산맥 체계에는 잘못된 부분이 많을 것이고, 새로운 연구 성과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요즈음 산경표를 바탕으로 한 신 산맥 론 주장들은 지형학적 논리에 맞지 않은 주장이며, 세계의 모든 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산맥 분류 체계와는 거리가 먼 주장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날이 갈수록 힘을 얻어 신산맥론에서 주장되는 산맥의 이름들이 방송과 신문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형학에서 '산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토의하려 한다.

## 2. 하천이 절단하고 있어도 한 개의 연속된 산맥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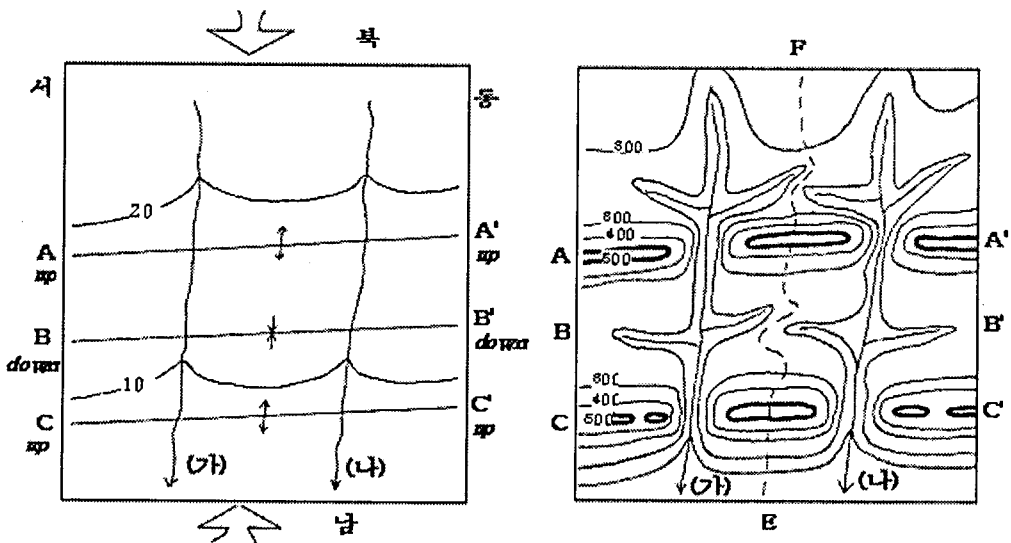


그림 1. 습곡 운동이 일어나기 전(左)과 후(右)의 지형 변화

### 3. 하천의 두부 침식이 산맥과 분수계를 다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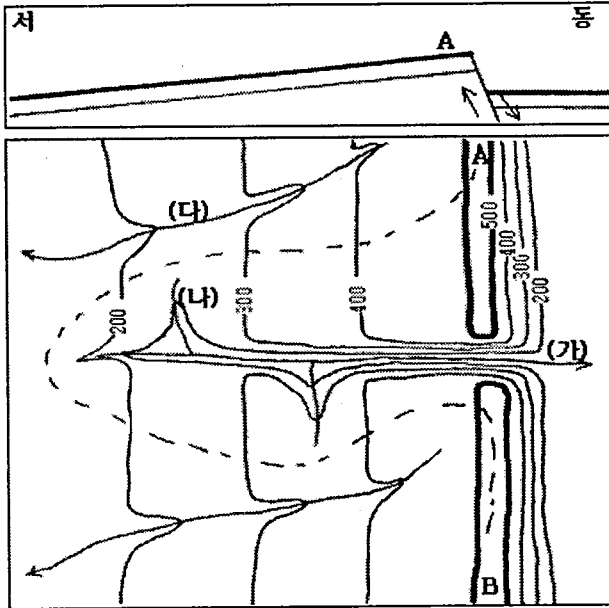


그림 2. 하천의 두부 침식이 산맥과 분수계를 다르게 하는 경우

### 3. 요약

본 연구는 산경표에 기초한 최근 한국 산맥논의를 검토하였다. 산경표는 풍수지리학에 기초를 둔 우리나라 전통 산맥 체계로 분수계 체계이다. 이 체계에 기초를 둔 논의들은 하천이 산맥을 절단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이 체계의 중심 맥인 백두대간은 많은 기원이 다른 산맥들을 연결하여 이름하고 있다. 지형학에서 산맥은 구조 운동이나 차별 침식의 결과로 형성된 산지의 선적 배열이다. 같은 원인에 의하여 형성된 산지의 선적 배열을 하나의 산맥으로 이름을 부여하고, 형성 원인이 다르거나 방향성이 다른 것을 합쳐서 하나의 산맥으로 이름 하지는 않는다. 지형학에서 정의되는 산맥은 선행 하천에 의해 절단될 수 있고, 분수계 이동 현상도 일어나기 때문에 산맥이 분수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백두대간이란 이름은 우리나라의 상징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교과서에서 우리나라의 지형을 설명할 때는 기존의 산맥체계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